

홍명보, 월드컵 사상 첫 원정 8강 이끈다

한국축구 사령탑 선임, 2015년까지 2년계약

오늘 기자회견 ... 내달 개막 동아시아컵 시험대

홍명보(44) 감독이 8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한 축구 대표팀의 새로운 사령탑으로 선임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4일 경기도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어 기술위원회가 추천한 4명의 사령탑 후보 가운데 홍명보 감독을 차기 감독으로 확정했다. 홍 감독의 계약 기간은 2년이다. 허정무 축구협회 부회장은 “그동안 많은 외국인 지도자들이 대표팀을 맡았지만 단발성으로 끝났다”며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다. 여러가지를 고려할 때 국내 지도자가 맡는 게 맞고 홍 감독이 적임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약기간이 2년이지만 절대 짧은 것은 아니다”며 “충분치 않을 수도 있지만 홍 감독과 충분히 교감을 나눴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귀국하는 홍명보 감독은 25일 파주NFC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대표팀 운영에 대한 청

사진을 밝힐 예정이다.

축구협회는 지난 19일 기술위원회를 통해 홍 감독을 포함한 4명의 후보군을 압축하고 세부 조율에 들어갔고, 결국 홍 감독을 차기 대표팀 감독으로 결정했다.

‘영원한 리베로’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홍 감독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대표팀의 주장이자 중앙 수비수로 한국축구의 4강 진출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2006년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아드보카트호(號)’의 코치로 합류하면서 지도자 수업에 본격적으로 나선 홍 감독은 2009년 국제 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8강에 진출하며 성공적인 사령탑 데뷔전을 치렀다.

홍 감독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U-23 대표팀을 이끌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 축구 사상 첫 동메달 획득의 쾌거를 달성하며 ‘차세대 지도자’로 인정받았다.

특히 홍 감독은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

을 주도한 박주영(셀타 비고), 기성용(스완지시티),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윤석영(퀸스파크 레인저스), 김창수(가시와), 신광훈(포항), 김기희(알 사일라) 등이 성인 대표팀의 주축으로 활약하면서 일찌감치 차기 대표팀 사령탑 물망에 올랐다.

그는 2012년 런던올림픽을 끝내고 차기 성인 대표팀 감독으로 강력하게 추천을 받았지만 ‘아직 때가 이르다’는 뜻을 내비치며 고사하고 지난 1월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안지 마하치칼라(러시아)로 지도자 연수를 떠났다.

홍 감독은 축구협회의 설득 끝에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의 사상 첫 원정 8강 진출의 꿈을 달성할 지도자로 나서게 됐다.

이날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된 홍 감독은 다음달 20일 개막하는 동아시아연맹(EAFF) 선수권대회부터 본격적으로 지휘봉을 잡는다.

이영무 고양 Hi FC 감독은 “홍 감독도 그렇지만 역시 현대 축구는 체력과 기술, 전술이 삼박자를 이뤄야 성적을 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체력에서만은 정신력을 더해 다른 나라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고 보면 관건은 기술력과 전술”이라고 말했다.

연습뉴스

“
한국 축구
조직·기동·정신력
3박자 이끌어 낼
책임자
”

‘재충전’ KIA 연승 갈까

프로야구 전망대

‘10-10’을 향한 양현종의 도전이 펼쳐진다.

휴식기를 보낸 KIA 타이거즈가 주중 안방에서 두산 베어스와 일전을 벌인다. 주말에는 대구로 건너가 선두 삼성 라이온즈와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인다.

KIA는 지난 20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6-3 승리와 함께 9연승을 찍은 뒤 주말 달콤한 휴식기를 가졌다. 다른 팀들의 승률 변동에 따라서 순위가 3위에서 4위로 내려왔지만 1위와의 격차는 오히려 3경기 차에서 2.5게임차로 줄어든 상태. 2위 넥센, 3위 LG, 4위 KIA는 반 게임차로 나란히 자리를 지키면서 그라운드 순위 싸움은 더욱 치열해졌다.

KIA는 타선 재점화와 함께 5월 부진을 털고 9연승을 내달렸다. 하지만 연승으로 인한 분위기 과열은 자칫 부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절한 타이밍에 휴식기를 보냈다. 또 흔들리던 불펜이 한 박자 쉬어갈 수 있는 시간도 벌었다.

새로 시작되는 KIA의 순위싸움의 키는 양현종이 쥐게 됐다. 양현종은 가장 먼저 선발로 나서 두산 유희관과 마운드 맞대

양현종, 두산전 선발 ‘10 연승-10 승’ 도전

주말 선두 삼성과 물러설수 없는 한판 승부

결을 벌인다. 로테이션상으로 30일 삼성과의 경기도 양현종의 몫이다.

일단 25일은 ‘좌완 스피드’ 대결이다. 양현종이 150km를 넘나드는 강속구를 바탕으로 한 ‘빠름의 미학’을 보여주고 있다면 두산 유희관의 피칭은 130km중반의 직구와 100km를 밀도는 슬로우 커브를 바탕으로 한 ‘느림의 미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파워와 경력, 객관적인 성적에서는 양현종이 앞도하고 있지만 유희관은 정교함으로 맞불을 놓게 된다. KIA 타자들이 강속구 투수보다는 기교와 투수에 약점을 보이는 만큼 예상외의 승부가 벌어질 수도 있다. 4일간의 휴식을 보낸 만큼 타선의 경기 감각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양현종에게는 10승과 10연승을 위한 ‘10-10’도전이기도 하다. 양현종은 지난 20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윤석민에 이어 구원 등판에 나서 ‘깜짝 승’을 거두며 9승 고지를 밟았다. 다승 단독 1위로 오른 양현종이 승리를 추가하면 2010년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채우게 된다. 팀은 10연승에 성공하게 된다.

타선에서는 4번 타자 나지완이 뜨겁다.

나지완은 앞선 한화와의 경기에서 9연승을 알리는 역전 투런포를 쏘아올리며 최희섭에 이어 팀의 두 번째 두 자릿수 홈런 주인

■ 프로야구 중간순위 (6월 24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승차
1 삼성	59	35	22	2	0.614	-
2 넥센	59	34	24	1	0.586	1.5
3 LG	63	36	27	0	0.571	2.0
4 KIA	59	33	25	1	0.569	2.5
5 롯데	62	33	27	2	0.550	3.5
6 두산	61	30	30	1	0.500	6.5
7 SK	59	26	32	1	0.448	9.5
8 NC	61	22	36	3	0.379	13.5
9 한화	61	17	43	1	0.283	19.5

공이 됐다.

9연승 기간 동안 나온 나지완의 홈런은 모두 5개. 중요한 순간에 터진 영양가 만점의 홈런들이었다. 연승의 주역 나지완은 홈런(10개·공동 4위)뿐만 아니라 타점(49개·2위), 홈루율(0.426·4위), 타율(0.325·6위) 등의 주요 타격 부문 상위권에도 이름을 올리며 뜨거운 여세를 보내고 있다.

여기에 불붙은 4번 타자 나지완을 필두로 최희섭·이범호·김주형이 나란히 타순에 배치되면서 KIA의 ‘한판 타선’이 완성됐다.

최고의 시즌을 써내려가고 있는 양현종과 나지완이 KIA의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갈 지 기대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인비(25·KB금융그룹)가 24일(한국시간)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 마지막날 3라운드 15번홀(파3)에서 벅크 샷을 하고 있다.

연습뉴스

박인비 ‘무적천하’

LPGA아칸소 챔피언십 우승 시즌 5승... 다음주 US오픈 기대

세계 여자골프랭킹 1위 박인비(25·KB금융그룹)가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시즌 5승을 달성했다.

박인비는 24일(한국시간) 미국 아칸소주 로저스의 피나클 골프장(파71·6389야드)에서 열린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 마지막날 1~3라운드 합계 12언더파 201타를 쳐 유소연(23·하나금융그룹)과 동타를 이룬 뒤 연장전에 들어갔다.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1차전에서 박인비는 1.2m 거리에서 버디를 잡아 파에 그친 유소연을 물러세웠다. 또다시 우승컵을 들어올린 박인비는 2001년과 2002년 박세리(36·KDB금융그룹)가 세운 한국선수 한 시즌 최다승 기록(5승)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우승 상금 30만 달러(약 3억4000만원)를 받은 박인비는 LPGA 투어 통산 승수를 8승으로 늘렸다.

또 US여자오픈에서 시즌 메이저 3승에 도전하며 한국선수 한 시즌 메이저 최다승 기록도 새로 쓸 태세다. 특히 박인비가 US여자오픈마저 석권하면 LPGA 투어 사상 두 번째

로 시즌 개막후 메이저 3개 대회를 연달아 휩쓰는 선수가 된다. 올해 남은 메이저 대회는 다음주 US여자오픈과 8월 초 브리티시 여자오픈, 9월의 에비앙 챔피언십 등 3개다.

박인비는 US여자오픈과 나비스코, LPGA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오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 선수 최초의 ‘커리어 그랜드슬램’ 위업도 이뤄낼지 관심이 쏠린다.

박인비는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회 우승 요인으로는 장기간 퍼트를 폈다고 밝혔다. 박인비는 “사흘내내 퍼트가 잘 됐다. 5월 말까지는 퍼트 때문에 다소 고전했지만 이달 초부터 퍼트에 다소 변화를 준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2개 대회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빨리 그런 기분을 가라앉히고 코스에 집중해야 한다. LPGA 투어 사상 몇 번 제라거나 누구의 기록을 깰까거나 하는 말 들에는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며 “다음주 US여자오픈을 앞두고 자신감을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박인비는 세계 여자골프 랭킹에서 11주째 1위를 지켰다.

연습뉴스

류현진, SF 에이스 범가너와 ‘리턴매치’

오늘 7승 재도전

류현진(26·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시즌 15번째 선발 등판일이 예상대로 25일(이하 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와의 3연전 첫머리로 결정됐다.

류현진은 이날 오전 11시10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의 경기에 선발 투수로 예고됐다.

원래 19일 양키스전에 등판한 뒤 24일 샌디에이고전에 나설 예정이던 류현진은 19일 경기가 비로 하루 연기돼 다음날 더블헤더 1차전에 나서면서 일정이 밀렸다.

민음직한 3선발인 류현진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돈 매팅리 다저스 감독은 24일 경기에 크리스 카푸아노를 올리고, 류현진을 25일 선발로 돌렸다.

25일 등판이 확정되면서 류현진은 자신에게 첫 패배를 안긴 상대인 좌완 매디슨 범가너와 ‘리턴매치’를 벌이게 됐다.

메이저리그 5년차인 범가너는 류현진의 메이저리그 데뷔전인 4월 3일 경기에 상대 선발로 등판해 맞대결을 벌인 주인공이다.

당시 류현진이 6.1이닝 동안 안타 10개를 맞고 3실점(1자책점) 해 패전투수가 되

연습뉴스